

電子部品工業의 育成과 方向



金 孝 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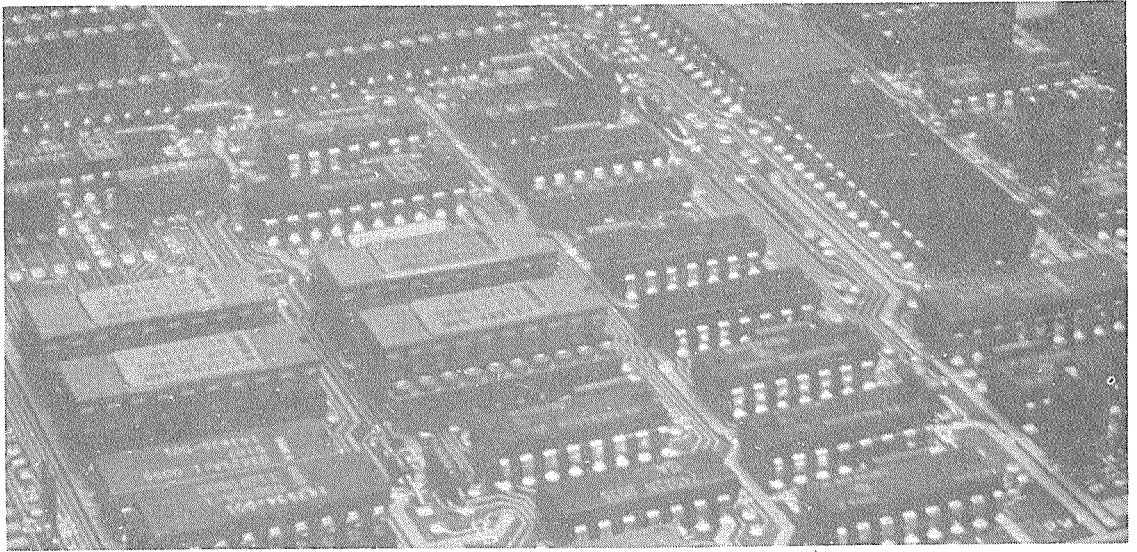
대한노블전자(주),
경인전자(주) 副社長

어려운 일이겠지만 기능공의 잦은 이동은 최대한 억제되도록 제도 마련은 불가능 할까? 결론적으로 세트와 부품, 부품과 관련 산업간의 수평수직 관계가 재정립 되어야 한다. 지표로 수평수직 관계를 그려서 현재의 정확한 국내 부품공업의 수준을 찾아내고 평점 이하의 분야 공업을 중점 지원 육성하므로써 수평수직 관계가 명확히 자신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좋은 정책의 뒷받침, 경기의 호전등 여러가지 좋은 여건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전자부품 공업은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상당한 수준에까지 온 부문도 있다.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시책에 발맞추어 상호 보완 및 노력하면 선진국 수준은 시간 문제이다. 10여년간 전자부품업에 몸담아 오면서 평소 느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부품공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첫째, 세트 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관계가 재정립 되어야 겠다.

1970년대 전자공업이 부상하면서 많은 기업이 무분별하게 전자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우후죽순식으로 회사가 생기면서 국내업체끼리의 과다한 가격경쟁, 기능공 스카웃으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능공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기술 축적이 되지 않아 기술 퇴보 등의 악순환 후에 멸망한 큰 기업이 손꼽을 정도이다. 세트업체간의 과다 가격 경쟁으로 세트업체는 일방적으로 부품업체에 가격인하의 압력으로 부품업의 적정 이유는 보장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불황일 때는 부품 대금으로 세트의 강매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관계는 세트 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신뢰성을 파괴하고 상호 불신으로까지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을 깨끗이 청산하고 대등하고 진정한 세트와 부품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때 양자 공히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세트는 부품의 종합제품이지만 부품은 많은 종류의 공업제품의 종합 제품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관련산업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이 부품공업 발전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특히 많은 관련 부문중 소재공업이 발전하여 자급자족 되었으면 한다. 현 국내 부품공업이 사용하는 기초 원자재의 70~80%를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수입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입대상국의 천재지변 등 큰 사건이 발생한다면 국내 세트 부품공업이 몇 개월을 순조롭게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행정력으로라도 소재 공업에 투자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잠



부품과 관련 산업과의 수평수직 관계가 재정리 되어야 한다.

간 설명한 바와 같이 1970년대의 무분별한 전자공업의 투자당시 소재 공업에 좀더 투자를 하였다면 지금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되었으리라는 안타까움이다.

셋째, 부품공업은 장치 산업이다. 고로 절대적인 이윤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稅制面에서 부품공업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金型은 2년 償却으로 되어 있다. 金型은 1개월에 壽命을 다할 수도 있고 2년에 壽命을 다할 수도 있다. 쓰지도 못하는 金型을 2년간 資産化하여 償却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전자제품의 싸이클은 상당히 짧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金型은 壽命이 다하면 근거 서류에 의하여 폐기 처분하고 장부價額에서 떨어 버린다고 한다.

또한, 호경기시는 人力不足이 필연적이다. 人力이 不足하면 合理化 省力化로서 Cover 하든지 아니면 賃金引上이라는 조건으로 스카웃 하든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하고 불가능하며 방법이 있다면 부품을 가지고 유희 인원이 있는 변두리로 찾아 가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전자부품은 많은 形狀의 부품을 조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稅工場인 경우 반출반입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組立賃의 싼 인건비와 복잡한 서류 Handling으로 인한 高賃金の 간접 인건비와 相計 되므로서 포기하는 경우와 個個가

정의 人力活用은 稅法上 營業감찰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 등 복잡한 행정의 완화가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넷째, 기능인력의 전문화 및 流動은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人材가 된다. 많은 부품 회사가 기능인의 잦은 이동으로 기술축적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기업과의 合作회사는 自往 KNOW-HOW의 경쟁회사로의 유출가능성으로 기술 이전을 꺼림으로서 선진 기술의 도입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기능공의 잦은 이전은 최대한 억제되도록 제도 마련은 不可能 할까? 결론적으로 세트와 부품, 부품과 관련 산업간의 수평수직 관계가 재정리 되어야 한다. 도포로 수평수직 관계를 그려서 현재의 정확한 국내 부품공업의 수준을 찾아내고 평점이하의 분야 공업을 중점 지원 육성 하므로써 수평수직 관계가 명확히 자신할 수 있는 時點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좋은 정책의 뒷받침, 경기의 호전 등 좋은 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위치를 정확히 하여 수평수직 관계를 재점검하여 1970년대에 있는 무모한 투자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와 업체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투자의 교통정리, 업체간의 관계 개선등을 명확히 했을 때 우리 부품공업은 세계의 일류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